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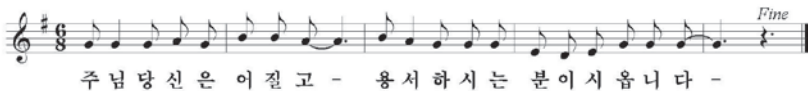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 13,30)

〈가라지를 부리는 사람〉, 도메니코 페티(1589-1623)

[제1독서] 지혜 12,13,16-19

[화답송] 시편 86(85),5-6,9-10,15-16ㄱ
(◎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로마 8,26-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 13,24-43 <또는 마태 13,24-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²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²⁵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²⁶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²⁷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²⁸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²⁹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³⁰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³¹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³²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³³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³⁴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³⁵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³⁶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³⁷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³⁸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³⁹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⁴⁰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⁴¹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⁴²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⁴³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복음 묵상

‘밀과 가라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내용입니다. 마태오 복음만이 전하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명확해집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좋은 씨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가라지들을 거두어 낼까요?” 그러나 주인은 수확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확은 종말을 나타내는 비유인데, 특히 종말에 있을 심판을 나타냅니다. 주인은 그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둡니다.

오늘 복음은 밀이나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자비, 곧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확 때까지 기다리는 주인의 자비로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우리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심판을 미루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지금 우리에게 가능성의 시간을 주십니다. ‘아직’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말 때까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나쁜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하규 베네딕토 신부)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마태 13,30)

밀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 1589- 1623)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화가로서 로마에서 태어나 루도비코 치콜리(Ludovico Cigoli) 밑에서 그림을 배웠지만, 주로 만토바와 베네치아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카라바조와 아담 엘스하이머의 명암법과 세밀한 빛의 효과를 공부했고, 만토바에서는 페르디난도 곤차가(Ferdinando Gonzaga) 가문의 궁정화가로 일하면서 루벤스(Peter Paul Rubens)와 친분을 맺으며, 그의 색채와 인물표현에 영향을 받아 두껍고 풍부한 붓질을 선택했고, 베네치아로 이주한 후에는 파올로 베로네세(Paolo Veronese)와 틴토레토(Tintoretto)와 같은 베네치아 화가들의 즉흥성과 빛의 효과와 자유로운 구성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 도메니코 페티

등에 관심을 기울여 독특하고 화려한 색상을 특징으로 하는 베네치아의 회화 전통을 따랐다. 페티는 제단화와 성당의 프레스코화 등 대형작품을 통해 극적이고 역동적인 구성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진면목은 신앙의 진리를 매우 소박하고 단순하게 묘사한 작은 크기의 패널화에서 그의 탁월한 색채감각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감수성, 그리고 정제되고 섬세한 필치를 발견하게 된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페티가 만토바의 궁정화가로 일할 때 그린 작품으로, 마태오복음 13장 24-30절의 ‘가라지의 비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세상 안에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화면 가장 앞쪽에는 씨를 뿌리던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한 후, 피곤함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악마가 나타나 들판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 이것은 성경말씀 그대로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마태13,24-25)

악마의 외관은 농부로 위장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는 악마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카락사이로 두 개의 작은 뿔이 달려

있고 발은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잡초는 들판에서 저절로 자라지만 가라지는 누군가가 뿌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좋은 씨앗이 뿌려진 위에 나쁜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밭에는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함께 자라듯이 세상에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악한 이의 자녀들이 공존한다. 세상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뒤로는 나무들과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화면 앞에 두 그루의 큰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다. 나무와 구름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인생도 고난과 불길한 상황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부로 가장한 악마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고 있으나 균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씨를 뿌리고 있다. 씨앗 역시 바람에 날려 어디로 떨어지는지 불분명하다. 불균형적인 자세로 파종한다는 것은 그 열매의 수확도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가라지가 자라자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하고 묻자, 집주인은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마태13,29-30)

밀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마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밀인가? 아니면 불에 던져질 가라지인가? 수확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혹시 우리가 가라지라면 자신을 죽여 밀의 수확을 도와야 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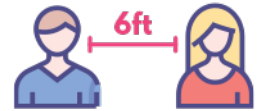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공지사항

1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평일 미사 재개

- 그동안 신자 없이 봉헌하던 **평일 미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6주 주간: 예레 22-25, 히브 1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7월 12일(연중 제15주일)

주일헌금	\$1,989.00
교무금	\$8,43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100.00
특별헌금	\$600.00
2차헌금	\$0
합계	\$13,11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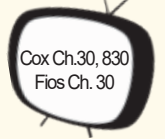
7월 22일(수) 오전 6:15-6:45 | 7월 25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위대한 교회학자들 1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16일(목) 오후 5:00-6:00
7월 17일(금) 저녁 8:00-9:00
7월 20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꺼안기 2A**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동정부부의 순교터 초남이 성지**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필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

○ 2020-21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안내

1. 입학 대상 (ADMISSION)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12th)

2. 학사 일정 (ACADEMIC SCHEDULE) :

2020년 9월 12일-2021년 5월 22일

매주 토요일 (Every Saturday) 오전 9:30-오후 12:3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3. 학비 (TUITION) :

등록비(\$50) 포함된 비용 (등록비는 환불 안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400	\$380	\$360

<등록 취소시 환불 규정>

- 1) 수업 시작 일주 전 취소 : 등록비 \$50을 제외하고 환불
- 2) 수업 시작 후 2주까지 취소 : 등록금의 50% 환불 (등록비 \$50 제외됨)
- 3) 수업 시작 후 2주 이후 취소 : 환불 불가

4. 등록안내 :

학비 또는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https://forms.gle/Bwnw2L2pv8aG4Rxt5>
- 등록비 보내실 곳: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pay to order: Hasang Korean School)
- 등록마감 : **8월 15일**까지

5. 기타 :

- 문의 : 교감 김정선
- ☎ 571-217-8941
-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국가는 가정을 보호해야 하고
교회는 가정을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